**2021년 감사제목 (21.09.20)**

1. **작년과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한 해였습니다. (사43:18-19) 말씀처럼,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학사로 이직하게 해주셨고, 그 이후 저의 생활에 변화를 주셔서, 새로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.  
   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.  
   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어, 당장 이직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,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시며 적극적으로 이직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형제들 덕분에 시도할 수 있었고, 또 순조롭게 인도해주심. 면접 과정을 도와주심, 무사히 이직하게 해주심 감사.  
   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된 것이 감사가 됩니다. 여러가지 의심,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, 모든 과정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시고,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.**
2. **이직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와 연관된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고, 그처럼, 정말 새로운 일을 많이 이루셨음. 재택근무 통해 교제를 풍성하게 하게 되었고, 또 사람을 도우며 풍성하게 배우게 해주셨음. (창28:13-15) 의 비젼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셨고,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음을 배우게 하심 감사.**
3. **여러 해야할 일들로 인해 부담스러웠었는데, 과정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심 감사.**